

민선교육감 시대, 교육정책연구소의 역할



차상철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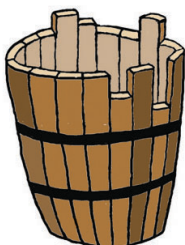
2010년 6월 전국적 단위에서 최초로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이 이루어졌다. 민선교육감 선출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교육행정과 학교운영에 교사, 학생, 학부모,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2014년 6월 민선 제2기 교육감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들의 민의는 참여, 협력, 자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이미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간선제로 선출된 교육감은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는 데 한계를 보였고, 교육정책은 주민들의 민의보다는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던 경우가 많았다. 학교운영 권한은 각 시·도교육청에 이양되어 있었지만, 학교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은 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지 못하였고 국가 수준의 정책을 내려 받아 추진하는 역할에 그쳤다.

하지만 민선교육감들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자체의 역량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지역과 현장에 적합한 교육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2011년 9월 전북에서 처음으로 교육정책연구소가 설립된 이래 전남, 광주에서 교육정책연구소가 설립되었고, 경기도는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독자적인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정책연구소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정책연구소가 수행하는 연구는 지방의 특수성을 살리고 현장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의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교육 현장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소, 정책실행부서, 그리고 학교 현장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교육청별로 설립된 교육정책연구소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연구 등의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공동연구를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현장성을 담보한 정책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지방교육자치가 한층 성숙될 것으로 확신한다.



물을 가장 많이 담을수있는 통은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치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 **NO!** 현장 적용 가능한 연구 **YES!**



정태식 || 교육연구사

전북교육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를 개소한 지 3년 남짓 되었다. 그 동안 우리는 줄곧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를 지양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학교 현장에 꼭 필요하며 적용 가능한 연구를 지향하자고 다짐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했는지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볼 시점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연구 과정을 거쳐 정책을 제안하였는가, 연구소에서 연구를 통해 제안한 정책 중에서 학교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한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박수 받은 정책은 무엇이고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연구소는 정책과제, 주요과제, 현안과제 등 연구과제 선정 단계에서부터 수차례의 협의회, 자문,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집단지성으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 과제 수행 과정에서 현장밀착형 연구, 협력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 협력 연구를 지향하는 것도 결국은 집단지성을 통해 학교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이다.

연구소에서는 연구 시작 단계에서부터 최종 자문 단계에 이르기까지 도교육청 업무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충분한 공감과 이해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 고찰, 메타분석, 설문, FGI, 심층면담 등 다양한 연구 방법과 협력 연구로 만들어진 연구보고서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기까지 정책공보담당관 정책·조정팀과 교육정책 연구과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이렇게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북 교원연수 활성화 방안 연구(2011)]는 관 주도에서 교사의 자발적 욕구나 학교 현장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연수로 전환을 모색하면서 전북교육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참신하고 새로운 연수 과정을 개설하였고, 현장지원맞춤형연수 강화, 강사풀 활용 등 제안 내용이 교원연수에 적극 반영되어 연수의 질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학부모 연수 개선 방안(2012)]은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일회성 연수를 전북학부모지원센터에서 연수 기획 및 강사 섭외까지 총괄하여 연수의 질은 높이고 연수담당자의 업무는 줄어들게 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찾아가는 학부모 독서교육은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리마한초등학교 교사 이승이

셋째, [전라북도 고입제도 개선방안 연구(2012)]를 바탕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북교육 중장기 발전방안과 연계하여 2017년 고입 완전내신제를 실시하고자 추진 중이다.

넷째, [전북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2013)] 부록으로 발간·보급한 '책으로 여는 세상'에는 독서 행사 시 초청할 만한 작가 소개, 전국적인 독서교육 우수사례 계획안, 검증된 도서 목록 선정 기관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현장 교사들의 독서교육의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다섯째, [미래형 학교효과성 측정도구 개발(개정판)(2013)]을 통해 혁신학교의 학교효과성 분석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초·중등학교에서 학교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하도록 현장에 안내하였다.

그 외에도 [학교자치 운영 모델 개발], [전북 중학교 중학군(구) 조정 방안] 등 전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현장밀착형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연구과제에 대해 협의하고 정책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많이 있다. 현장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및 정책제안에 대한 공감 부족과 예산 등의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추진될 때는 아쉬움도 크다. 물론 모든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그대로 현장에 모두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연구 과제로 선정되어 연구된 결과에 대해 교육청 실무담당자의 공감과 현장 적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위한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연구소의 모든 연구는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전북교육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학교 현장에 온전히 실현되는 그날까지 학교 현장을 공감하여, 아픔을 치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는 연구가 되도록 연구소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새날이 밝는 해는
어제의 유산입니다.
이 지



학습연구년제

교사들과 함께

학습연구년 제도가 실시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학습연구년 제도를 알고 계시고,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학습연구년제에 선정이 되면 대학 등 연수 가능 기관을 위탁 연수 기관으로 지정하며, 그 기관에 파견되어 연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선생님들께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현실적으로 대학교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육정책연구소도 위탁 연수 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네분의 선생님이 교육정책연구소로 파견 나와 연구 활동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은 개인 연구 과제를 연구하면서, 교육정책연구소의 연구 과제를 협력 연구하고,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분석 및 정책 제안에 참여하며,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워크숍 및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연수 프로그램 등이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의 참여 속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의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정책연구소에서 학습연구년을 보내면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전북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 꼭 필요한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탬 수 있다는 보람이 있습니다.
- 교육 정책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교육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 교육 정책연구소에는 개인적인 연구 공간이 잘 갖춰져 있고 지원이 원활하여 개인 과제를 수행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내년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교육정책연구소가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입 완전 내신제 전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하면서



오정란 || 연구위원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월 중순,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현행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완전 내신제로 전환하겠다고 고등학교 입학제도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에 앞서 본 연구소에서는 [전라북도 고입제도 개선방안 연구(2012)]를 수행하면서 고입 완전 내신제 전환을 제안하였고, 2014년 1월 “전북교육정책포럼”을 통해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지난 10월 셋째 주에는 평준화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의 학부모, 교원,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 공청회를 마련하여 고입전형제도의 변화에 대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왜 바뀌어야 하는가?

전북지역의 현행 일반고 입학전형제도는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의 성적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학생들에게 이중의 학습 부담을 안겨주고 있고, 선발고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선발고사 72%, 내신성적 28%)하여 중학교 교육을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최근 중학교 교육정책의 흐름을 보면 창의인성 교육과정 및 체험 중심의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이에 맞춰 평가도 기존의 시험성적 위주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성취수준에 대한 평가로 전환되고 있다. 게다가 전주, 군산, 익산 등 평준화 지역의 2018학년도 고입선발시험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수가 일반고 입학정원에 미달되어 사실상 선발시험이 필요 없게 된다.

어떻게 바뀌는가?

핵심 내용은 학생선발방식이 현행 중학교 내신성적과 선발고사성적의 합산방식에서 중학교 내신성적 100%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적용 시기는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대상인 현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현행 선발고사는 학생들에게 내신성적 이외의 선발고사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왔고 학부모에게 사교육 부담을 안겨준 만큼 고입 완전 내신제로의 전환은 획일적 성적 위주의 교육경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학교 교육이 교육의 본질에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신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중학교 교육이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다양한 특색 있는 교육활동, 특기적성 및 진로탐색 교육에 보다 부합되기 때문이다.

고입제도가 변화하게 되면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학생에 대한 평가방식, 학교생활에까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대부분의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교원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보다 바람직한 고입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고입 완전 내신제 전환에 대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내신제로의 전환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 내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학교 간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완전 내신제 전환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경쟁과 속도는 좌절로 이어집니다.
그림자를 추월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서지 (인)

고입 완전 내신제 전환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기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내신제로의 전환에 대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안내,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 미래의 고입제도는 단순한 주입식 성적경쟁에서 벗어나 학생의 꿈과 적성을 찾아주고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



정재균 || 연구위원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6·4지방선거에서 55%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북도민들이 교육현장 투명성 확립과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제 제2기의 교육정책도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4년도 아이들만 보고 달려갈 것”이라고 선언했고, 전북교육 기본방향도 지난 1기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라는 교육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지난 4년간 지켜왔던 교육철학의 기초는 유지하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된다.

김승환 교육감 제2기의 교육지표는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해졌다. 지난 4년이 인권, 청렴, 혁신학교로 상징되었다면 향후 4년은 이에 더해 자치, 협력,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교육철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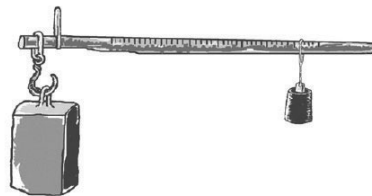
이러한 교육지표에 따라 전북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의 4가지 정책을 내걸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각 정책별 핵심과제 한 가지씩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조성’의 차원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만 들기이다. 주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데, 학생들이 이 잠을 충분히 자고 부모님과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30분 정도 늦추고 또한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

둘째, ‘참된 학력신장’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평준화 실현’이다. 내년 1월 본초 조직개편을 통해 참학력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인바, 삶과 연계된 교육과정, 배움 중심의 수업, 성장을 돕는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협력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확대를 통한 학력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의 차원에서 추진되는 ‘학교자치 실시’이다. 학교자치의 핵심은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을 신장하고 소통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적으로 학교자치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

넷째,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의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사 공개채용’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사학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적 책무성은 강화해야 하므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비리 근절을 위한 교사 공개채용 확대 및 정작은 꼭 필요하다. 또한 나아가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執中無權

저를 추를 권(權)이라 합니다. 권은 권력이 아니라
권정입니다. 가운데를 잡으면 권이 평요라지 않습니다.
심지영

교육자치 훼손하는 시·도교육청 평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조무현 || 연구원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여 교육 행·재정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와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 2001). 하지만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평가내용, 평가과정,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의 문제이다. 현행지표는 교육의 성과와는 무관한 단순 실적 중심의 지표가 과다하며, 이는 교육 현장에 평가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리고 재정투입을 유도하는 지표가 많아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조직 운영을 유도하여 시·도교육청의 현실에 맞는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사업자체의 오류나 검증되지 않은 시범적 성격의 사업을 평가지표에 포함시켜 양적 측면의 확대만을 유도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방식의 상당 비중이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어 시·도교육청 간 불필요한 과열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모든 정성평가 지표가 상대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해 평가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평가영역 및 지표의 배점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배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들 간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둘째, 교육자치 맥락에서의 문제점으로는 평가의 전반적인 방향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정책을 유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펴나가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즉,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평가영역의 배점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국정과제를 이행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평가 측정 산식을 적용하고 있다 보니 시·도교육청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 및 지표 개발이 미흡하며, 지역 환경에 따라 정책 추

진의 상황이 다름에도 불과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법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와 활용 측면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 순위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은 시·도교육청 간의 정보 공유를 막고 불필요한 소모적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별교부금 자체가 평가의 목적이 되어버려 교육현장을 비교육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순위 자체에 의미를 두기 보다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과 교육여건을 파악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진정한 시·도교육청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교육과 행정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교육자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하며,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평가에 대한 환류체제를 강화하여 시·도교육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알려주는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주춧돌부터 그립니다.
집을 짓는 순서와 집을 그리는 순서가
같습니다.

그림책 읽는 교사모임, 아직 모르시나요?



성희옥 || 연구원

“개학한 첫날은 아이들에게 ‘틀려도 괜찮아’를 읽어주며 학교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돕고, 어버이 날에는 ‘돼지책’을 읽어주며, 동생과 사이가 나쁜 학생에게는 ‘내 동생’, ‘피터의 의자’, ‘내 동생 달로 보내버려’ 등을 읽어준다. ‘100층짜리 집’을 읽고는 실제로 우리 반 친구들의 집을 그리고 이어 붙여 ‘30층짜리 집’을 만들기도 하였다. 역사를 가르치면서는 ‘태양의 새 삼족오’를 읽어주었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등 전래동화 그림책도 읽어주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할 활동으로는 ‘꽃 할머니’를 읽어준 후 압화 작품 만들기, 희움 팔찌 사기 등 직접적인 활동과 함께 사회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 동화홀씨 4기 전주신동초 박연희

위의 글에서 박연희 선생님이 활용한 책은 모두 그림책이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교사들은 수업을 위해 어린이 책을 공부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직경력이 10년 정도만 되면 거의 모든 교사가 어린이 책 전문가가 된다고 한다.(영국의 독서교육/김은하/대교출판)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대학교에서조차 아동문학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린이 책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은 채 대학을 졸업한다. 그러다보니 학교 독서교육이 수업과 연계되지 않고 일회성, 보여주기 식의 독후활동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다. 교사가 좋은 어린이 책 500권 정도만 잘 알고 있어도 학생의 독서단계와 정서 상황에 맞게 책을 권해줄 수 있으며 독서토론, 교과연계수업 등 책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교사들이 최소한 3년 정도는 어린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독서모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독서모임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독서는 자전거 타기’와 같아 스스로 힘 있게 페달을 밟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함께여서 힘이 되지만 협력하지 않으면 모임이 무산되기 쉽다. 그래서 모임의 원칙을 세우고 모두의 의견을 모아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어린이 책을 읽는 모임은 동화책을 읽는 모임과 그림책 모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동화책을 읽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독서모임처럼 진행하면 되지만 그림책을 읽을 경우는 좀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보완하며 이야기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림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림보다는 글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화 되어있는 어른의 경우 그림을 보되, 보지 못한다. 그래서 모임을 통해 글이 아닌 그림을 읽는 방법을 의도적

으로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림책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최소한 3회 정도는 ‘어린이도서연구회’ ‘동화홀씨’와 같이 그림책을 공부해 온 모임으로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안내받으면 좋다. 또한,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관심있는 교사들을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서모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제모임

매주 목요일, 17~18:30, 김제검산초 도서관(검산초 설치혜)

정읍모임

매주 수요일, 17~19시, 정읍교육지원청(동신초 양선진)

군산모임

격주 토요일 10~12시, 군산진포초등학교 도서관(오식도초 손현아)

고창모임

매주 목요일, 17~19시, 고창교육지원청 (고창신림초 김경희)

책마루

매주 화요일, 18~20시, 전교조전북지부 (마령초 정민경)

동화홀씨1~3기

매주 월요일, 18~20시, 전교조전북지부 (군산소룡초 황정원)

동화홀씨 4기

매주 금요일, 18~20시, 전교조전북지부 (전주신동초, 윤미란)

동화홀씨 5기

매주 목요일, 18~20시, 전교조전북지부 (전주금암초, 김준기)

동화홀씨 6기

매주 월요일, 18~20시, 전교조전북지부 (전주신동초 김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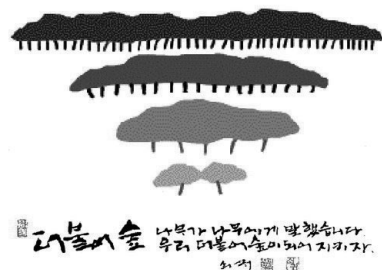
협동조합학교와
민주적 학교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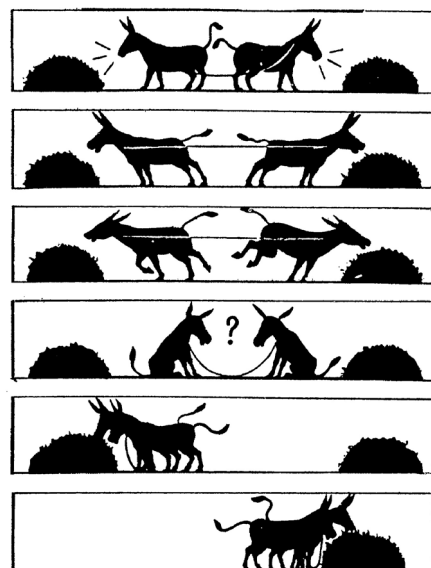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는 1997년부터 교육개혁을 펼쳤다. 약 12억 파운드의 재정을 투입하여 학교를 세우고 교사를 충원했으며, 전국단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대한 결과 공개를 통해 예산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을 촉발시켰다. 그 결과, 우수학생 비율은 증가했고 기준 미달학교는 1,600개교에서 670개교로 감소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의 불평등 심화, 학교의 서열화, 학생의 창의력과 자율 능력 훼손, 공교육의 시장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 개혁으로 교육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고 지방교육재정은 감소했다. 영국의 공공분야 투자가 감소하면서 학교 재정도 감소하게 되고 결국 공교육의 시장화가 초래되었다.

학교로 급속히 늘어났으며 현재도 많은 학교가 협동조합학교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협동조합학교 모델은 크게 협동조합 트러스트 학교(Co-operative Trust Schools)와 협동조합 아카데미(Co-operative Academies)로 나눌 수 있다. 협동조합 트러스트 학교는 외부 파트너가 학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자금을 기부하며, 학교 내·외부 인사가 함께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지역사회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친다. 영국의 협동조합학교 대부분이 트러스트 학교이다.

협동조합 아카데미는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인정받는 학교이다. 교육부 및 지방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이나 종교 등 지원 기관의 후원으로 운영된다. 국가 표준의 교육과정을 채택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Co-op College에서 제작한 학습교재에 수록된 그림, 협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협동조합학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가르치고 있다. 조합원의 협력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며, 협력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편성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영국 전역의 협동조합학교 전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Co-operative College는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드게임, 온라인 게임, 영상자료, 책 등의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학생들은 보드게임 등을 통해 협동조합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협동조합학교와 혁신학교의 지향점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는 듯하다. 협동조합은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공정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협동조합학교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의 구현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민주성' 이니 '자발성' 이니 '협력' 이니 하는 개념들은 혁신학교를 논할 때도 많이 등장하는 소중한 가치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가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바탕으로 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학교의 모습은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모습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를 협동조합학교로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학교매점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또한 방과후학교와 돌봄 등의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또는 협동조합과 협력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외형적 틀이 아니라 어떠한 이념과 철학에서 협동조합을 접목시킬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Co-operative College의 교육담당 책임자인 Julie Thorpe씨도 구성원들의 자발성과 민주성, 연대 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주체의 자발성과 민주적 참여에 의한 협동조합학교 움직임은 민주적 학교자치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민주시민 육성의 기반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연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학교를 우정과 돌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평 화 켜

학교를 우정과 돌봄의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 선생님들이 '전북평화샘네트워크'라는 연구 및 실천의 공동체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17개 학교에서 40여분이 참석해 진안의 홍삼스파에서 1박2일(2014. 1.21.~ 1.22.) 간 워크숍을 진행하며 발대식을 가졌고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정책연구동아리에 '평화샘'이라는 이름으로 응모해 선정되었습니다.

정책연구동아리로 선정된 후에는 2차에 걸친 컨설팅 연수와 여름방학을 이용해 2박3일 간 전국 놀이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네트워킹 회원 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개인 및 학급, 학교 수준에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지혜와 실천의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동아리 회원 6명이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에듀힐링 연수(평화샘 프로젝트) 기본과정에 강사요원으로 활동하며 실천의 경험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평화샘프로젝트는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으로 바라보던 기존 학교폭력 대처 패러다임을 '가해자-피해자-방관자'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방관자를 방어자로 변화시킴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매뉴얼입니다. 평화샘프로젝트의 네트워크 회원들은 교실평화 4대 규칙, 멈춰 제도, 왕따 예방 역할극을 통해 '보살핌의 원'을 나들이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배움의 원'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를 배움과 우정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준비된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과 지역에 대한 공부를 통해 대안적 교육과정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평화샘 프로젝트에 더 많은 선생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더 나은 유아교육을 꿈꾸며

유아정책 동아리

유치원은 교육에서 기초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나 교육청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정책에 대한 연구 또한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유아교육정책 동아리는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는 교사들 11명이 모여 유아교육의 정책적인 지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마련하려는 동기로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올해로 3년째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정책 동아리는 2012년에 '유아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방안'을 1년 동안 연구하여 정책 제안을 하였으며 두 번째 해에는 2013에 전면 시행된 누리과정에 대한 현장 연구를 통해 '생태유아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한 3~5세 누리과정 검토를 통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혁신 유치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전북 유아교육 혁신의 나아갈 바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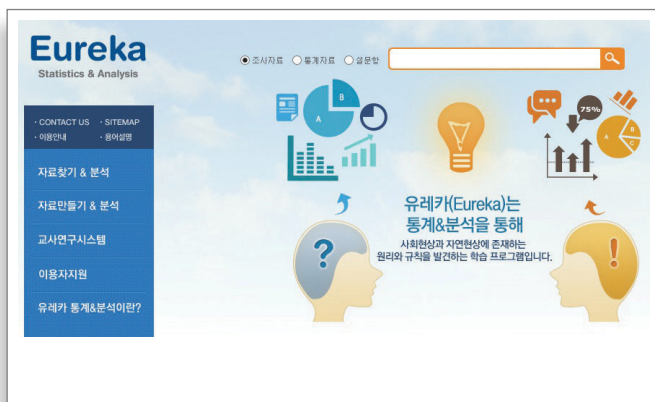
유치원 교사는 어느 급별보다 행정업무가 많고 아이들과 대부분 몸으로 활동하다보니 업무피로도가 높아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유일한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정책 동아리로서 전북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며 더 나은 유아교육의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나무는 겨울에도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난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더 강단해라는 사실입니다.
서지영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골치 아프시죠? 간단하고 편리한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레카”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려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죠? 설문지 인쇄해서 → 담임선생님을 통해 배부하고 → 학생들로부터 수거해서(잘 내지도 않죠) → 담당자가 취합해서 → 분석 및 통계내고 → 편집까지 일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특히 교육계획서에 들어갈 설문조사는 문항도 많고 대상자도 많아서 바쁜 학년말 담당 선생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골칫거리입니다.



전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설문조사를 할수 있는 “유레카” 시스템을 구매하여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시스템은 교사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설문 문항을 완성하면 인터넷 주소 링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주소 링크를 설문 대상자에게 메신저나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보내주면 간단히 링크를 클릭해 설문에 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폰으로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설문지 배부 및 수거의 불편함이 없을 뿐 아니라,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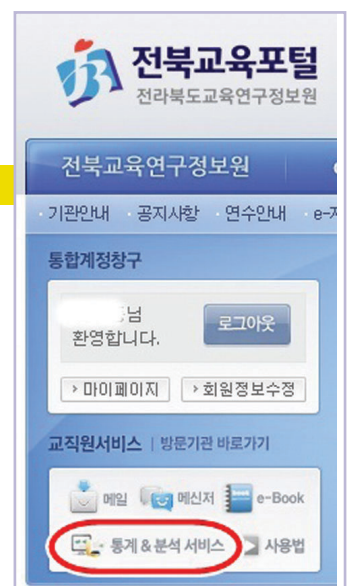
결과는 실시간으로 취합되고 홈페이지 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통계 처리할 수 있어서 선생님들의 업무를 대폭 줄여드립니다.

유레카 홈페이지에는 이용 매뉴얼과 활용 예시 등이 안내되어 있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가며 설문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이나 개인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통계 자료들도 탑재되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다 보면 의외의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유레카 홈페이지 접속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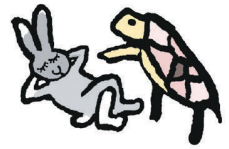
전북교육포털(<http://www.jbedu.kr>)에 접속하여 통합 로그인 창에 로그인합니다. 그림과 같이 로그인 창 아래쪽에 “통계 & 분석 서비스”라고 생성됩니다. 클릭하시면 유레카 홈페이지로 접속됩니다.

문의: 교수학습지원부 (T. 250-3742)



2014 호남권교육정책연구소 공동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제 | 통섭, 융합의 시대! 참학력이란 무엇인가?



참학력가자 우리

통섭을 깨워서 참학력은 거북이가 뛰어야 합니다.
신정

1. 참학력이 필요한 시대

지식기반사회와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의 전환을 요구한다. 학생의 학습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무엇을 '안다'는 단순한 지식 이해가 아닌 지식의 내적 구조와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판단능력, 창의력을 중시한다.

2. 세계적인 학력 개념 변화

OECD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는 이질집단에서 상호작용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식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협력적 문제해결능력을 새로운 학력으로 설정하였고,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싱가포르, 유럽공동체도 자기주도성, 정보변화 대처력 등을 새로운 학력의 개념으로 제시하고 학교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참학력

전라북도교육청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학생 배움 중심의 수업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배움 힘'으로서 '참학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 전남, 광주교육청이 지향하는 새로운 학력관과
전라북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참학력에 대해
공감하고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열린 토론 마당을 준비하였습니다.

일 시 : 2014. 11. 28(금) 15:00~17:40

장 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대강당

주 관 : 호남권교육정책연구소(전북, 광주, 전남)

참가자 : 각급학교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회원, 학계, 교육정책 담당자 등(약300 석)

좌 장 : 노 상 우 || 전북대학교 교수

발 제 : 김 위 정 || 경기도교육연구원, 대안적 학력 개념의 모색과 핵심역량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토 론 : 안 중 만 || 진안마령초등학교 교사, 배움과 삶이 하나 되기 - 마을에서 크는 아이들

송 승 훈 ||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미래핵심역량 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사례

유 경 훈 || 광주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최 지 윤 || 전라북도교육청 장학사, 전북교육청의 참학력 관점 및 실현방안

김 정 안 || 서울삼각산고등학교 교사, 사랑과 과학으로 일구는 삶의 역량 교육